

# 중국 조선족 한글정보자원 생산과 출판물에 대한 연구

## A Case Study on th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Produced and Published by Chosun People in China

이 명 규(Myoung Gyu Lee)\* · 장 우 권(Woo Kwon Chang)\*\*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한글정보자원생산과 출판물    |
| II. 조선족 형성과정과 한글 | 1. 민족정보자원의 생성과 구성현황   |
| 1. 조선족 이주에서 정착까지 | 2. 출판사의 시대별 변천사와 그 특징 |
| 2. 조선족의 정체성과 한글  | IV. 결론 및 제언           |

### 초 록

정보자원의 생성과 축적은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문자는 과거의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확충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연속적인 지적 정보자원의 전달과 이용, 새로운 정보자원의 창조과정 속에서 우리의 민족정보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 보존하는 것은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며 민족적 당위성의 표출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내에 산재한 한민족 정보자원으로서 한글정보자원 생산과 출판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족 형성과정과 한글, 그리고 민족출판의 생성과 그 현황을 시대별 변천사와 더불어 그 특징을 조사하였다.

주제어 : 중국조선족, 한글, 정보자원, 정보자원생산, 출판물, 민족출판

### Abstract

Information resources production and accumulation are composed of the characters. It is succeeded to the cultural of the past, to create them, and to the vehicle of the cultural. This paper shows that the construction consisted of 4 steps: setting up a goal of construction, defining and developing information resources as HANGEUL by chosun people in china, being status and analysing information resources produced and Publications by it, and a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se the information resources productions and Publications of HANGEUL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case study of them.

Key Words : chosun peopl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resources production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2-BL2002)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yulee@chonnam.ac.kr)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wk1961@hanmail.net)

· 접수일 :                      · 최초심사일 :                      · 최종심사일 :

## I. 서론

문자는 말이나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적기 위한 일정한 체제의 부호이다. 인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언어가 시간적으로 전개됨과 동시에 사라지고, 공간적으로 멀리까지 전달 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문자를 고안해 내기에 이르렀다. 인류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여러 다른 종류의 문자에 대한 연구는 그것을 사용한 문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sup>1)</sup>

정보자원의 생성과 축적은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문자는 과거의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확충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연속적인 지적 정보자원의 전달과 이용, 새로운 정보자원의 창조과정, 즉 정보자원의 순환과정을 통해서 현대의 문명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적 정보자원순환이 예기될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취향에 맞는 상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영화든 서적이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의 한쪽에서 일어나 그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정보문화 속에서 나타난 정보자원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민족 정보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정리 보존함으로써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민족적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내에 산재한 한민족과 관련된 정보자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누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하여 출판현황을 조직화하는데 있다. 이들 정보자원은 일차적으로 한글(조선문)로 된 정보자원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한글 정보자원의 생산과 관리현황은 중국의 동북3성과 북경 등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판사이다. 이러한 한글 정보자원은 누구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자원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고 타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경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대상과 범위는 중국에 산재되어 생산되었거나 생산되고 있는 한글정보자원이다. 이 정보자원은 재중 조선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즉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그 결과로 생산된 정보자원들이다. 연구내용으로서 정보자원은 크게 생산의 주체와 객체인 생산물로 구성된다. 즉 생산의 주체는 출판사와 인쇄소이다. 이들 주체들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조선족의 정

---

1) (<http://100.naver.com/100.php?id=65767>)

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생산물을 창조해 냈다. 출판사는 정부,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집필한 글들을 모아 편집을 거쳐 단행본, 연속간행물, 목록집, 색인지 등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족의 중요한 지식정보자원이다

연구방법은 연구내용과 관련해서 선행된 연구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한 이론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재중 한인 정보자원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일부 학자들이 최근에 발표된 단행본이나 학회 논문, 보고서 등의 서지사항을 기록한 참고문헌이 있을 뿐이고, 국내문헌 중 유일하게 책자형 목록으로서 『재외동포관련 문헌자료목록』이 있다.<sup>2)</sup> 또한 중국 내에서는 민족 출판사별로 자체의 출판목록을 부분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연변지역의 연변대학도서관에서 간행된 서지목록이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자연과학서적을 제외한 인문사회과학 중심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중국 내에서 발행된 도서, 북한에서 발행된 도서, 한국에서 발행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족 자치주 내에서 조선어문(한글)으로 된 문헌도서가 그동안 얼마나 연구되고 발행되어 왔는지를 체계적 정리가 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중 한글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들이 현지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재중 조선족 조선문 출판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 현지의 조선족 정보자원 생산자 모두를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족출판사가 해당된다. 둘째,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내 조선족집거지 모든 지역 중 출판사가 있는 북경시, 요녕성의 심양, 길림성의 장춘, 길림, 연변자치주(연길시, 훈춘시,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안도현 등), 흑룡강성의 하얼빈시, 목단강시 등을 망라하여 조선문 출판현황에 대한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중국 내의 조선족관련 출판사 현황을 총 망라하여 나타낸 것으로 정보자원의 학술적, 경제적 가치로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조선족 형성과정과 한글

2) 이구홍, 안영진. 재외동포관련 문헌자료목록(서울 : 재외동포재단, 2000).

이 목록에는 중국관련 문헌이 전체 652개로 나타났으며, 중국 내의 조선족 발간문헌은 1980년대 이후 발행된 것으로 120개이며, 중국어로 된 문헌은 3개가 소개되었다. 또한 비디오자료는 KBS 영상사업단, MBC 프로덕션에서 1990년대 이후 제작하여 방영한 6개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 1. 조선족 이주에서 정착과정

중국 내에는 55개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2000년 중국의 제5차 전국인구 보편조사 통계<sup>3)</sup>에 따르면 조선족 인구수는 1,923,842명<sup>4)</sup>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도 조선족인구는 약 2백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조선족 현역군인 5,854명과 한국 등 외국으로 이민 갔거나 시집간 조선족 약 6-7만 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sup>.

또한 동북 3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집중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조선족 인구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길림성의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인구는 42.7%를 차지할 정도로 집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조선족의 집중적 거주가 자치주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특히 연변자치주에서 경제력, 인력, 교육시설 등과 같은 사회, 문화, 정치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고 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으로의 이민은 중국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청 태조의 발상지로 보아 봉금령을 내린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서침으로 더 이상 봉금령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1886년 봉금령이 해제되고 두만강 이북의 화룡육지역이 한민족의 독점개간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조선인의 이민을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선인이 북간도(현재 연변)로 이주하게 된다. 중국 이민의 수는 대략 1904년 5만명, 1907년 7만명, 1910년에는 10만명, 1921년에는 45만명으로, 그리고 1940년에는 114만 명으로 증가했다.<sup>6)</sup>

중국 조선족은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을 통해 중국인과 더불어 항일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역사를 지닌다. 또한 일제의 패망이후에는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공산군에 편입돼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전쟁의 과정에서도 조선족은 중국인민해방지원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52년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에 의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건립된 것이다.

조선족은 자치주 성립이후 중국정치적 변동과정에서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그 영향을 받아왔다. 1953년 이후의 반우파운동,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과정에서 4귀(낮은 사상, 낮은 문화, 낮은 풍속, 낮은 관습)의 하나가 된 민족주의로서 탄압을 받았다. 연변자치주에서 3천명의 희생자를 내었고, 모든 학교가 폐쇄되었으며,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종결, 그리고 덩소평의 등장에 따른 개혁과 실용노선에 따라 일방

3) 중국 2000년 인구조사자료(중국통계출판사, 2002).

4) 2990년보다 481명이 증가(단순한 이론적 수치)

5) 김병호, 중국조선족 인구유동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동북아 평화번영과 재외한인국제학술회의, 2003. 12.18-19. 학술진흥재단 지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韓商)·문화연구단, 2003), pp.107-120.

6) 사공복희, 장우권, "재중조선족 정보자원 생산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1호(2004,3), pp.173-201.

적인 민족동화의 강경책에서 민족구역자치를 내용으로 하는 민족정책이 부활되었다. 1990년 까지 연변 자치주 1개, 장백 자치현 1개, 자치향 및 진 43개, 촌 1,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이 중국사회에서 동화되지 않고 자치구역을 지니면서 생활해온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조선족은 백여 년 전부터 동북지방으로 이주하면서 북간도(연변지방)와 동변도(서간도, 압록강 북안지방)의 개척자로서 역할을 행하면서 1910 년대에 연변에 민족집거구 및 사회를 형성했다. 둘째, 조선족의 이주와 모국과의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이주초기부터 1945년 광복될 때까지 이주가 지속되었으며, 모국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 및 인구유동이 지속되었다. 셋째, 조선족은 1931년 만주사변 전후부터 중국공산당을 따라 중국의 해방에 동참함으로써 여타의 민족과 동일한 평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이와 같은 조선족의 상황은 중국이 점차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sup>7)</sup>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대략 20여만 명이 중국관내지구로 이동하고 농촌의 인구가 점차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민족교육기관이 감소하면서 민족교육의 위기에 처해있다. 연변의 경우 1989년 조선족 중학교 19개소, 소학교 188개소가 있었지만 1995년에는 중학교 6개소, 소학교 77개소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는 중국의 민족정책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개별민족 이상으로 민족문화의 명맥을 유지시킨 과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궁극적인 민족정책의 목표가 중화민족의 창출에 있고 현재의 정책이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과 개혁개방정책의 효과에 따라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생명력의 유지는 도전 받고 있다.

## 2. 조선족의 정체성과 한글

중국의 조선족은 민족적 정체성을 문화의 동질성과 공통된 언어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첫째, 문화의 동질성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전승되어 유지되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는 조선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매년 자치구, 시, 현별로 개최되는 축제 속에 나타나는 전통 민요, 무용, 놀이, 음식문화 등은 조선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민족적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둘째, 민복의 중요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공통어인 한글이 존재한다. 조선족 민족정체성의 특징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공통어가 존재하고 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이다. 이점에서 중국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은 공통언어의 사용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스스로가

7) 방수옥.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연변조선족사회." 재외한인연구, 제 8호(1999), pp. 397-399.

조선어(한글)의 사용을 가장 중요한 민족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주로 조선어를 사용한다. 자녀들은 조선족소학교에서 공통언어로써 조선어를 배운다. 물론 개혁개방이후 조선어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조선족유치원과 소학교에서 민족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시도가 강하다<sup>8)</sup>.

따라서 조선어의 상실은 민족정체성의 상실로 다가온다. 이는 공통된 민족어를 상실하고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세대로부터 찾으려는 것으로 조선족보다는 의식적,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치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이 있었기에 중국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 수 있었다. 이것은 조국이 정신적 지주로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북한의 역할이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 그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조선족의 정체성은 조선족이라는 민족성과 더불어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 중국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중국의 강토를 개척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으며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중문화 심리를 가진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조선족은 한반도에 있는 조선족과는 다른 이중문화를 지닌 중국민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중국속의 조선족이 당당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족의 정체성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인구자질 등을 보면 조선족은 중국에서 앞서가는 민족에 속한다. 199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중국 총문맹률은 22.21%이고 소수민족 문맹률은 30.683%에 달하며, 한족의 문맹률은 21.53%이다. 이에 비해 중국 조선족의 문맹률은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15-39세 연령층의 조선족 문맹은 0.49%에 불과하지만 한족의 문맹률은 8.75%에 달한다.

한족을 포함한 백만 이상 인구를 가진 19개 민족 가운데 매 백만 인구당 대학지식수준을 지닌 수는 조선족이 2만 2,709명으로 제1위이고, 그 다음 순서로 몽골족(7,570명), 만족(6,243명), 회족(5,911명), 한족(5,584명), 카자흐족(5,364명), 바이족(5,021명), 위글족(4,565명), 투자족(2,127명), 둥족(2,127명) 등이다. 이외의 6개 민족은 1,000-2,000선에 속하고, 이족과 하니족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sup>9)</sup>

이처럼 광복 이후의 50년 역사를 통해 중국 조선족 사회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지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민족교육과 민족문

8) 최우길,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 재외한인연구, 제8호(1999), p.197.

9) 정신철, “중국 조선족인구분포의 변화특징에 관하여,” 재중동포사회 기초자료집 I(재외동포재단, 1999), pp.17-18.

화는 자체의 노력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다민족 국가에서 ‘최고’의 영예를 실현하였다. 10)(황유복 2002 : 31-32).

위와 같이 중국 내의 조선족은 21세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여러 기업의 환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정치, 경제적으로 남북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주제에서 설정한 “중국 조선족 한글정보자원 생산과 출판물에 대한 연구”는 재중 조선족의 정보자원 개발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III. 한글정보자원생산과 출판물

#### 1. 민족정보자원의 생성과 구성현황

##### 가. 조선문 생성과 출판의 가치

어떤 민족이든 소리의 세계가 있다. 소리에 뜻을 더하면 말이 된다. 조선족의 뜻이 더해지는 소리는 조선말이다. 말을 일컬어서 그 민족의 상징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말을 표기하는 부호는 문자이다. 즉 말은 내용이고 문자는 형식이다. 한자는 중국말을 표기하는 가장 적절한 형식이고, 한글은 조선말을 적는 유일무이한 형식인 것이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 없고 형식이 없는 내용이 없듯이 언어가 없다면 문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문자가 없다면 그 언어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현대 문명사회에서 문자를 가지지 못한 언어는 빨리 사라진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 장족, 몽골족, 조선족 등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족은 문자가 없다. 해방 후 중국정부에서 병음표기 등 방법으로 문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유명무실한데 그쳤다. 그러한 연유로 다수 소수민족은 한문을 표기문자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 민족은 한족이나 다름없이 빠르게 동화됨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sup>11)</sup>

겨우 약 2백만에 불과한 조선족이 동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조선문자가 있었고 그 조선문이 중국 내 조선문 출판을 통해 보존

10) 황유복 편, 중국속의 한글학교(중국적 한국어학교)(미·중한인우호협회, 2002), pp.31-32.

11) 류연산, “중국조선문출판의 의미와 진로.” 월간 한민족, 제2권, 제4호(2004, 4), pp.172-173.

되고 발전해 왔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조선문자가 있고 조선문 출판이 있게 된 법적 보장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교육 자치법”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에 있으며 이 법들을 기초로 하여 기초하여 1988년에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어문공작조례(工作條例)”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03년에 수정되었다. 조례의 제2조에는 “조선언어문자는 조선족 인민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문자공구이며 자치주 기관에서 직무를 집행할 때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 문자를 통용하며 조선어문자를 위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례의 제9조에서는 “자치주 내 국가기관, 기업상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체공상호의 공장, 표말, 상장, 증건, 표어, 공고(公告), 광고, 표지(表志), 도로표식 등은 조선어와 한어문자를 공용한다”고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자치주 내 조선족 공민은 각종 신청서, 지원서, 등기표, 시험 등에서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제15조에서는 조선문도서, 신문간행물과 교과서에 관한 출판사업에 대하여, 제17조에서는 조선언어문자로 된 문학창작활동을 제창하는데 대해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과 중국 정부의 경제적인 담보가 없었다면 오늘날 연변의 조선언어문자는 벌써 소실되고 말았을 것이다.<sup>12)</sup>

그러므로 문자는 언어의 수호신이며, 출판을 통해 보존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이에 조선문 출판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연변은 지리적으로 중국 영토의 동북변강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동북에서도 농업지구이다. 그러므로 옛 동북공업기지 재건에서도 배제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범위에 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이기 때문이다. 연변에 조선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선문 출판에 의해 보존되어온 조선말을 구사하는 조선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 자치주는 존재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조선문출판의 정치·경제적 의미가 있다.<sup>13)</sup>

#### 나. 민족출판의 현황과 성과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그 인구는 약 1억으로서 중국인구의 8.4%를 차지한다. 인구가 백만이 넘는 소수민족은 16개가 되며, 24개 민족이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은 적은 수량이 내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외에 대다수는 경계가 낙후한 주변(周邊)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줄곧 소수민족의 출판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수민족 출판사가 36개가 있으며, 해마다 23종 민족문자로 각종 유형의 도서 3,000여종을 출판하고 있다. 이 36개 출판사에는 종업원이 3,121명 있으며 그 가운데서 편집인원

12) 전계서, p.173.

13) 전계서, p.174.



이 2,027명이다. 길림성 연변에는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등 3개 출판사가 있는데, 전국 36개 민족출판사의 1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 개 출판사의 종업원 수는 전국 36개 민족출판사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동북 3성에는 료녕과 흑룡강성에 각각 하나씩 있는 출판사까지 망라하여 모두 5개 민족 출판사가 있는데, 길림성에 3개가 있어 그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연변은 중국 내 소수민족문자의 출판기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연변의 출판사들은 ‘소수민족도서출판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모임을 자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중국 내 소수민족출판사업이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과 배치가 비교적 완전한 민족출판계통을 형성하였다. 36개 민족출판사들은 14개의 성,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들의 집거지구에서는 저마다 자기의 언어, 문자로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소수민족지구의 문화교육발전상황에 적응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문 출판, 내몽골을 중심으로 한 몽골문 출판, 서장, 사천을 중심으로 한 장족문 출판 등은 이미 세계의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둘째, 대량으로 우수한 민족문자도서를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지도자들의 저작,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규정을 소개한 도서, 진귀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리한 유형의 도서, 민족지구의 개혁을 촉진시키고 민족지구의 인문(人文) 형세를 소개하고 소수민족의 풍토인정과 예술 등 방면을 소개한 서적, 민족언어 발전과 민족간의 교류를 추진하는 대형적인 언어, 문화면의 사전류 도서, 민족지구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농업, 임업, 목축업, 부업 방면의 과학보급서적, 민족, 종교, 역사, 문학, 언어를 연구하는 방면이 수준 높은 학술전문저작이 있다. 양이 많고 질이 우수한 이런 도서들은 민족출판사업의 성과라 볼 수 있으며 소수민족 대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셋째,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민족문자로 된 문과, 이공과 교과서 체계를 형성하였다. 해마다 여러 가지 문자로 각종 교과서 2,500여종을 출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전에 책을 받도록 보장하여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넷째, 민족출판사는 외부의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출판체제 개혁의 심화에 착안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출판사는 이 면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효과와 이익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비교적 높은 자질을 가진 민족출판인들을 양성하고 형성하였다. 전국의 민족출판사업이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선족 민족출판사업도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량적인 조선

14) 樊希安 等, 99 中國朝鮮族出版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延吉: 延邊教育出版社, 1999), pp.11-12.

문 도서의 출판은 조선족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켰고, 대외교류에 편리를 주었으며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였다.<sup>15)</sup>

#### 다. 민족출판의 위기와 원인

중국 내의 민족출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일종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족출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 위기는 잠시적인 것이고 또 다른 위기는 사회변혁에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어디에서 잠재하고 나타나던 간에 그 위기와 원인을 찾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출판비용이 부족하고 소수 민족문자도서의 출판이 전국 도서출판 중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개별적 출판사의 민족문자도서의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발행도서 종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연변인민출판사는 1988년에 조선문도서 116종을 출판하였으나 그 후에는 해마다 줄어들어 1994년에는 47종에까지 줄어들었다. 조선족 일인당 평균도서보유량은 1988년의 4책에서 1994년에는 0.9책으로 떨어졌다. 조선족 소년아동과 한족 소년아동의 정황을 비교해 보면 연길지구에서 한족 어린이들이 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서는 40~60종이지만 조선족 어린이가 선택할 수 있는 도서는 겨우 한 두 종뿐이다.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출판도서의 품종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둘째, 발행망이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민족지구에서 발행할 수 없고 어떤 지구에는 도서시장이 공백으로 되어있는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소수민족출판사에서 책을 팔기 어려운 현상과 소수민족인들이 책을 사기 어려운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북지구에는 1983년에 조선문도서 발행망과 발행점이 173개가 있었으나 1994년에는 겨우 21개뿐이었으며 그 중의 8개는 연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운영비가 매우 부족하여 일부 민족출판사는 경영이 곤란하게 되었고 더 발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원래 받던 보조금으로는 부족할 뿐더러 경영관리수준이 비교적 낮고 새로운 도서의 이윤 실현비율이 낮아서 일부 출판사는 결손이 많아 심지어 생존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넷째, 민족출판조직에 계승자가 부족하고 신진역량이 부족하다. 어떤 출판사 조직은 근무연수가 오랜 된 직원이 많으며 새로운 출판산업에 적극적이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경향이 있어 시장경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섯째, 조사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상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6)</sup>

15) 변희안, “민족출판의 위기와 출로” ‘99 중국조선족 출판문화 학술세미나 논문집 中國朝鮮族出版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연변교육출판사, 2000), pp.12-15.

16) 진계서, pp.15-17.

이러한 위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출판업은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 매우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민족 출판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중국의 출판업은 현재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 출판으로부터 현대적 출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출판업의 산업화, 집단화의 발전 추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출판사의 현대 기업적 특징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출판 운영과 관리도 빠르게 과학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우리의 민족출판은 아직도 “전통적 출판”에 머물러 있어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고정적 관념에 휩싸여 있어 개혁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넷째, 단순한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즉 자기발전의 의식이 부족하다. 다섯째, 민족정책의 좋은 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는 민족출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또 다른 하나는 출판정책을 장려해야 할 상위 부서에서 민족정책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sup>17)</sup>

#### 라. 민족출판의 진로와 대책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출판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출판업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진로와 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민족출판사업이 민족의 진보,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 중화의 진흥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속 정책상에서 민족출판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서출판범위를 확대하고 한문도서를 발행하여 얻은 이윤을 소수민족 도서를 출판하도록 허락하여 정보제공봉사를 하고 상호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양호한 외부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민족출판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민족출판에 대한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영관리를 향상시켜야 한다. 즉 민족출판의 근본적 진로는 개혁에 있으며, 출판사 내부의 관리능력과 경영수준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넷째, 대외수출을 목적으로 한 도서를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그 출판을 강화해야 한다. 연변의 세계 출판사(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는 이 방면에서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발휘하고 이용해야 한다.

다섯째, 소수민족 출판산업에 근무하는 인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섯째, 지방민족출판사에 “지위를 확정” 해주며 민족특색을 선명하게 나타내야한

---

17) 樊希安 等. 前掲書, pp.15~18.

한다. 특색, 개성은 출판사의 생명이다.

따라서 소수민족들이 창조한 찬란한 문화와 소수민족지구의 특색있는 풍토인정은 출판인들에게 풍부한 도서출판 원천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예술, 풍토인정은 바로 민족출판 특색의 소재이다. 즉 우리의 조선족출판문화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sup>18)</sup>

## 2. 출판사의 시대별 변천사와 그 특징

### 가. 출판사 현황

중국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인 1947년에 벌써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 처음으로 연변교육출판사를 세웠고, 1951년에 연변인민출판사를 세웠으며, 1953년에 중앙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을 세웠고, 1976년 이후에는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요녕민족출판사를 세웠으며, 1986년에는 고차원의 학술저서, 고등학교 교재 출판을 담당한 연변대학출판실을 세웠다.

현재 중국 내 조선족 조선문발행 출판사는 7개가 운영되고 있다. 즉 조선문민족출판사로서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등 6개의 출판사와 북경의 외문출판사가 있다. 이들 출판사의 운영경비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지원금 보다 자체 내의 수익사업을 통해 경영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 III-1)은 출판사의 경영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는 1999년 중국 조선문도서 경영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결손보조 상황을 보면, 연변에서는 재정보조금을 20% 삭감한 해인데 북경과 흑룡강, 요녕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3년 현재까지 연변에서는 원래의 1998년의 195만원 상태를 회복하지 않았는데 북경 등지에서는 또 증가하였으며 민족출판사에 준 2003년의 재정보조는 1400만원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 근래에 북경, 흑룡강, 요녕의 조선문 출판은 활기를 갖게 되었다.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 국토 내에서 하나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민족정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같이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sup>19)</sup>

18) 前掲書, pp.18~20.

19) 류연산(2004), 전계서, pp.177-178.

(표 III-1) 조선족 조선문출판사 경영환경(1999년)

출판사 명칭	설립 연도	사원수	재정 보조금	인당 보조 금액	노임 총액	경영출판 경비	출판종수 (현재)	기타
북경민족출판사	1953	382	1,100	2.87	540	560	2002년 현재 2500여종	2003년 재정보조 1,400 만원
요녕민족출판사	1986	54	100	1.85	65	35		
연변인민출판사	1951	172	156.6	0.9	207	52.6		
흑룡강민족출판사	1976	43	100	2.32	45	55		
계		651	1,456.6	7.94	857	702.6		

#### 나. 시대별 변천사

조선문발행 출판사는 시대별로 다소 변화가 있었으며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조선문출판사 초창기(1947년부터 1965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5개의 출판사가 있었다. 여기에는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출판사, 외문출판사, 중국 소년아동출판사 등이다. 둘째, 조선문출판사의 수난기(1966년부터 1978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7개의 출판사가 있었다. 즉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교육출판사, 외문출판사, 료녕인민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등이다. 셋째,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조선문 출판의 번영기이다. 현재 7개의 출판사가 있다. 북경에 있는 민족출판사와 외문출판사, 료녕성의 료녕민족출판사, 흑룡강성의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연변자치주의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등이다.<sup>20)</sup>

여기에서 조선문민족출판사는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교육출판사, 료녕인민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등 6개이다.

#### 다. 조선문 도서출판의 시대별 발행 현황

조선문 도서출판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발전을 이어왔다. 이러한 발전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21)</sup>

20) 樊希安 等. 前掲書, pp.51~70.

21) 류연산(1999), 전계서, pp.52~62.

(표 III-2) 조선문출판사 시대별 변천사

시대	연도	출판사	계
초창기	1947년부터 1965년까지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출판사, 외문출판사, 중국소년아동출판사	5
수난기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교육출판사, 외문출판사, 료녕인민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7
변영기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교육출판사, 외문출판사, 료녕인민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7

## (1) 1947년부터 1965년까지 : 조선문 출판의 초창기

이 시기는 조선문 출판사업의 초창기이다. 8.15광복 후 민족언어와 문자가 새롭게 부활되어 민족학교를 세우는 봄이 일어났다. 이러한 민족교육의 수요에 힘입어 1947년 3월 24일 조선족은 자체의 힘으로 연변교육출판사를 창립하였다. 1949년 말에 이르러 연변교육출판사는 지방의 국영출판단위로 되었고 중, 소학교 교과서와 일반 도서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5월 1일부터 “길동일보”는 길동 출판사의 이름으로 책을 발행했으며 연변일보, 동북조선인민보에서도 여러 가지 출판인쇄를 하였다. 동시에 조선족유지인사들과 지식인들이 문인동맹, 문화협회, 각종인쇄, 문필사 등 단체들을 세우고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1951년 8월 19일 연변인민출판사가 창립되었다. 이 시기 조선문출판사업은 대부분이 연변인민출판사와 연변교육출판사가 담당했으며, 소량의 부분은 건국 후 세워진 북경의 중앙민족출판사와 외문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또한 이 시기 조선문 출판은 2,062종이고 그 중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646종, 연변교육출판사에서 68종(교과서는 제외), 민족출판사에서 4종, 중국소년아동출판사에서 1종을 발행하였다. 각 류별 출판도서 현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이 시기에 출판도서를 종별로 나누어 보면 정치관련 출판물이 474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학 351종, 예술 281종, 농업과학 169종, 경제 151종,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저작 142종, 문화, 과학, 교육, 체육 117종순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의 조선문 출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기마다의 정치운동의 수용에 따른 출판물 비중이 크다. 중국에서 일컬은 항미원조 시기 출판을 예로 들면, 당시 연변인민출판사와 중앙민족출판사에서 각각 군사류 책 27종, 7종을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저작과 기타 공산당문건 등은 완전히 정치수용에 의한 도서들이었다. 바로 이 시기의 출판은 독자중심, 시장수요를 떠난 정치의향에 의해 우선되었다. 이것은 시장의 흐름을 전혀 도외시키는 계획출판이라 독자와 시장수요는 배제된 상태였다.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955년 중앙문화

부의 출판방침에 따라 제정한 일반도서 출판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조선문도서 출판현황도표(1947-1965)

종별 \ 출판사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출판사	외문출판사	중국소년야동출판사	계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저작	53	4	85			142
철학	38	1	11			50
사회과학	14	1	2			17
정치	431	6	34	2	1	474
군사	27		7			34
경제	119	3	29			151
문화, 과학, 교육, 체육	74	35	8			117
언어문자	34	5	3			42
문학	337		13			350
예술	163		118			281
역사, 지리	30	3	30			63
수학, 물리, 화학	14	2				16
천문학, 지구과학	8	3				11
자연과학	42	5	3			50
생물과학	6					6
의약 위생	34					34
농업과학	169					169
공업, 기술	47					47
교통운수	2					2
항공, 우주	2					2
종합도서	2					2
미분류(?)				2		2
계	1,646	68	343	4	1	2,062

① 맑스-레닌주의 통속물과 정치서적에 관한 출판 ② 농촌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에 관한 서적, 즉 합작화 방면의 문건 출판, ③ 귀향지식청년들이 농업생산노동에 참가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이야기로 된 선전물, ④ 간부들의 이론학습서적과 참고자료출판, ⑤ 자연과학과 생산지식방면의 서적, ⑥ 문예서적과 아동서적 출판.

위와 같은 계획아래 “홍루몽” 연구 중에서의 자산계급사상을 비판한 문집, 호풍의 저작, 문집을 비판한 책과 자료, 호풍반혁명집단을 비판하는 책들을 대량으로 발행하였다.

둘째, 과학지식연구서와 보급도서는 한 구석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그 내용까지도 단순하고 무지를 나타내는 엉터리였다. 예를 들면, “무당산량 1만근, 지어 5만근을 내려면 밭이나

논을 한메터 이상 번지고 개를 잡아 거름을 내야한다”는 것도 있었다. 오죽하면 주은래총리가 어느 농촌에 갔다가 개를 거름으로 했다는 경험보고를 듣고 차라리 개고기를 먹으면 영양에도 좋은 것이라 하였을 정도다.

셋째,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던 조선어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58년 9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차 어문사업회에서는 전국 민족어문과학토론회의정신을 전달하고 관철,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이른바 회의정신이란 한어의 새로운 술어로 소수민족언어를 충실히 하고 풍부히 하는 것은 객관적 발전의 필연적 추세라는 것, 민족언어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과 아울러 민족언어가 한어에 접근하고 의거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사회주의이므로 소수민족언어에서 한어성분을 증가할수록 좋다는 실천방침을 내놓았다. 이 회의 후 “민족정풍”을 전개하였으므로 광대한 조선어문직종조사자, 특히 출판업종사자들은 감히 민족언어 사용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고 아울러 “조선어문”교과서를 “조선족어문” 교과서로 고치기까지 하였다.

넷째, 출판업종사자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조선문출판의 초창기 편집인들은 대부분 고졸졸업생들이고 극히 개별적으로 대학생들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대학졸업생들이 보충되긴 했어도 뜻있고 재능있는 지식인들은 반우과투쟁(1957-1959) 당시 우파분자, 민족주의자로 내몰렸다.

다섯째, 이 시기 조선문출판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①편집출판인들을 양성했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조선문도서출판을 유지하였다. ②중, 소학교 교과서를 출판함으로써 조선족 교육건설에 이바지하였다. ③계획적인 출판체제와 기업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④조선민족사회건설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교과서를 주로 출판한 연변교육출판사는 창립초기에 조선민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조선족 교육출판기지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시기에 연변교육출판사의 사업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 III-4)이다. 여기에서 교과서 총수는 161종, 교육도서 총수는 32종, 전체적으로 193종이 발행되었다

(표 III-4) 연변교육출판사 창건초기(1947 ~1949) 출판사 사업현황

연도	교과서 총수				교육도서총수				총종수	총인쇄수
	소학	중학	사범·노농유치원	합계	교사용	학생용	일반용	합계		
1947	14	9	1	24	3		1	4	28	225,000
1948	37	19	2	58	1	3	7	11	69	1,175,000
1949	31	48		79	3		14	17	96	1,376,000
합계	82	76	3	161	7	3	22	32	193	2,776,000

(\*출처 :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5-승리에서, 민족출판사.)



(2) 1966년부터 1978년까지 : 조선문 출판의 수난기

이 시기는 조선문 출판의 수난기였다. 이 시기 조선문도서는 모두 1,367종으로서 연변인민출판사가 985종, 연변교육출판사가 6종(교과서 제외), 민족출판사가 269종, 외문출판사가 87종, 요녕인민출판사가 1종, 1976년에 창립된 흑룡강민족출판사가 17종, 같은 해에 창립된 요녕민족출판사가 2종이다. 주제별 발행도서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조선문도서 출판현황도표(1966-1978)

출판사 종별	연변인민 출판사	연변교육 출판사	민족 출판사	외문 출판사	요녕인민 출판사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요녕민족 출판사	계
맑스, 엥겔스, 레닌, 쓰탈린, 모택동 저작	30		162	23				215
철학	29		4	3				36
사회과학	1							1
정치	224		95	33	1	4		357
군사	15		1	2				18
경제	10		3	1				14
문화,과학, 교육, 체육	22	1		1		7		31
언어문자	16	5						21
문학	263		1	20		6	1	291
예술	164		2				1	167
역사, 지리	56		1					57
수학, 물리, 화학	5							5
천문학, 지구과학	4							4
자연과학	24							24
생물과학	4							4
의약 위생	25			1				26
농업과학	78							78
공업, 기술	14							14
교통운수								
항공, 우주	1							1
종합도서								
미 분류(?)				3				3
계	985	6	269	87	1	17	2	1,367

여기에서 정치분야가 35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문학 291종, 맑스, 엥겔스, 레닌, 쓰탈린, 모택동 저작 215종, 예술 167종, 농업과학 78종 순으로 발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 도서출판은 전시기 특징들을 보존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지녔다.

첫째, 이 시기 출판은 정치의 메가폰이었다. 천문학과 같은 책마저도 맑스-레닌주의, 모택

동 사상의 고정된 틀에 맞추려고 억지를 부렸다. 문학작품은 정치이론에다가 형상의 옷을 입힌 것이었고 그런 것마저도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은 손가락으로 설정되고 기타라는 번역물이었다. 도서종류로 보면 모택동선집, 모주석시사, 문화대혁명에 관한 문건이 정대 대부분이었다.

둘째, 출판편집인들이 일한 공간이 없어져버렸다. 1968년 8월 출판계통에 공작조가 내려오면서 편집인들은 일을 중지당하고 출판사업 중의 이른바 “암흑면”과 도서와 교과서 중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수정주의” 등의 검은 색채를 밝혀내기에 광분했다. 노동자와 선전대가 출판계통의 운영권을 장악하면서 지식인 리더자들이 밀려나고 지식인편집인들이 일터에서 해고되었다. 대신 노동자, 농민, 학생, 군대 등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연변인민출판사만 보더라도 40여명의 지식인들이 “정치역사문제”로 청산을 당해 수갑을 찻고 그 가족까지도 연루되어 최저표준의 생활비도 받지 못하였다.

셋째, 민족문자와 언어가 철저한 파산의 변두리에 이르렀다. 문화혁명시기 “주최 민족인 한어를 따라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조선문 출판은 완전히 한어식 조선어를 사용하였다. 1974년부터 간신히 조선어도서출판이 등장하였지만 조선어 속에 조선어한자의 음으로 음차한 한어가 대부분이었고 1976년 주은래의 “조선어는 평양을 기준하라”는 지시에 의해 모든 조선어규범은 평양말을 따랐다. 이 규정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넷째, 이른바 정치적 요구라고 하여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완전히 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사업의 경제력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 시기 모든 도서출판은 이익금을 전혀 보지 못하고 국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다.

### (3) 1979년부터 1990년까지 : 조선문 출판의 변영기

이 시기는 조선문 출판의 변영기이다. 중국공산당 11기 3차회의 후 전국의 출판사업은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었다. 조선문 출판도 품종, 부수, 내용 등 면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보여 “서적의 고갈상태”는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이 시기 조선문 출판은 모두 2,359종으로서 연변인민출판사가 1,081종, 연변교육출판사가 180종(교과서를 포함하지 않음), 북경민족출판사가 511종,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가 339종, 요녕민족출판사가 190종, 외문출판사가 28종, 연변대학출판사가 30종이다. (표 III-6)은 이 시기 조선문 도서출판 현황을 류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에는 문학이 900종으로 가장 많이 발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문화, 과학, 교육, 체육이 261종, 정치 250종, 언어문자 157종, 자연과학 104종, 농업과학 78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 조선문 출판은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치중심으로부터 문화과학 등 사회중심으로 출판이 전이되었다. 정치서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연구론저들이다. 세계문학명저, 새로운 세계조류에 따른 도서들이 많이 발행되

(표 III-6) 조선문도서 출판상황도표(1979-1990)

출판사 종별	연변인민 출판사	연변교육 출판사	민족 출판사	흑룡강 조선민 족출판 사	료녕민족 출판사	연변대학 출판사	외문출판 사	계
맑스, 엥겔스, 레닌, 쓰탈린, 모택동 저작	2		29	1		1		33
철학	20		4	2	1	1		28
사회과학	7		20	1	1	1		30
정치	44	4	189	7	6			250
군사	3							3
경제	20		11	5	3			39
문화,과학, 교육, 체육	99	100	8	45	8	1		261
언어문자	35	25	8	45	33	11		157
문학	427	34	158	159	91	8	23	900
예술	161	2	24	20	8	1		216
역사, 지리	46	2	17	10	17	6	1	99
수학, 물리, 화학	26			3				29
전문학, 지구과학	1		15		1			17
자연과학	64	3	17	13	7			104
생물과학	3		2	1	1			7
의약 위생	34		6	5	2			47
농업과학	58			14	6			78
공업, 기술	22		1	3	3			29
교통운수	8							8
항공, 우주				1				1
종합도서	1	10	2	4	2			19
미분류(?)							4	4
계	1,081	180	511	339	190	30	28	2,359

었다. 특히 조선문 출판이 민족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졌다. 1970년대말 1980년대 추판은 전시기에 비해 아주 자유스럽고 활발하였다. 둘째, 대담하게 민족연구와 민족력사연구 등 저서들을 출판하였다. 조선족 역사, 문화, 교육, 경제, 언어 등 분야의 저서들이 적지 않게 나오므로써 전통을 되살리고 민족동질성을 수립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셋째, 출판사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편집진들의 의식이 양, 질 면에서 향상되었다. 조선족 출판사가 4개, 민족출판사 내 조선문 편집부가 둘로 되었고 편집진들도 거의 대학졸업생들로 되었다. 시골로 추방되었던 편집진들도 누명을 벗고 다시금 본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넷째, 계획출판으로부터 시장출판으로 점차 전이하기 시작하였다. 완전히 기업화 되지 못했어도 신문, 방송에 비해 훨씬 기업화 된 것이다. 그리고 조선문 도서출판을 위한 자금마련으로 한문도서출판이 조선족 출판사에도 허락되었다. 1984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만화 무협지는 초판 발행부수가

백만을 넘어섰다.

전반적으로 조선문 출판은 초창기, 수난기, 번영기를 어렵게 걸어오면서 때로는 조선민족 사회에 저해요소가 되기도 하면서 조선족 사회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기초가 되었다.

#### 라. 중국 조선족 출판문화

##### (1) 중국조선족 출판문화의 특징

조선문 출판사들은 성립되면서부터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선민족의 얼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 독자성을 수호하였으며 시종일관 우리 민족의 글을 출판중심으로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감으로 생각하면서 점차 조선족 출판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조선족출판문화도 자기의 독특한 성격과 색채를 기반으로 한 특색을 가지게 되었다.

##### (2) 중국조선족 출판업과 다른 소수민족출판업 비교

중국내 조선족출판업은 다른 소수민족출판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 조선족출판업은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56개 민족이 함께 영위하고 있는, 중국출판업이라는 대계(大系)속에서 하나의 작은 계통 혹은 자계통(子系統)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56개 출판사가운데서 소수민족출판이라는 체계 속에 주로 조선문 출판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이라는 대환경속에서 대계통의 영향을 받으며 그 긴밀한 연계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지켰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중국조선족출판업은 조선민족출판이라는 이 범주에서 본다면 한반도(조선반도라 칭함)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족출판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며 또 한반도의 전통적 문화와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천입민족으로서의 중국조선족은 문화형성의 토대로 되는 언어를 적재체(載體)로 한 출판물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수립, 전통문화에 대한 고양 교육에 대한 집착 미풍양속(美風良俗)에 대한 제창(提唱) 등에서 조선반도의 출판물과 같은 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연속성과 계승성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중국조선족출판문화가 한반도의 전통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생성해왔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공통점과 혈연적인 관계는 우리 조선족출판문화의 발전에 이로운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주고 있다. 이는 국내 다른 소수민족출판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조선족출판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국내 다른 소수민족출판업과의 대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내에 56개 민족이 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문건은 한어, 장어, 위글어, 몽골어, 조선어밖에 없다 5대 언어문자가운데의 하나를 주요전파매개로 하는

중국조선족출판업은 출판역사가 오래되고 출판체계도 확고히 형성되었다. 조선족의 주 수도인 연길에 세 개의 출판사(연변인민출판사, 동북조선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를 두고 있는가 하면 조선족산재지구에 두개의 출판사(요녕민족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북경 국가급 민족출판사에 편집실을 두고 있으면서 각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소수민족 가운데 국외에 동일한 민족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적지 않지만 중국의 조선족처럼 자기의 고국을 가지고 있고 또 고국과 잇닿은 변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적다. 이러한 원인으로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자기 출판물에서 본 민족의 문자를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 (표 III-7) 중국소수민족통계와 (표 III-8) 연변 3개 출판사 출판통계 그리고 (표 III-9) 연변소수민족문 출판통계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III-7) 중국소수민족출판통계

년도	1996	1997
품종	3,209	3,429
초판	1,431	1,361
인쇄부수(만책)	5,060	1,999
총인쇄종이(천장)	265,228	270,216

(\* 출판 : 중국출판년감 1996년-1997년)(언어종류 15종)

(표 III-8) 연변 3개 출판사 출판통계

년도	1996	1997	1998
품종	1,216	1,309	1,427
초판	555	591	572
인쇄부수(만책)	2,298.62	2,262.94	2,225.15
총인쇄종이(천장)	171,769.44	168,044	173,240

(\* 출판 : 연변출판국 통계, 1996, 1997, 1998)

(표 III-9) 연변소수민족문 출판통계

년도	1996	1997	1998
품종	784	812	861
초판	309	322	315
인쇄부수(만책)	1,089.32	1,016.74	977.06
총인쇄종이(천장)	58,316.47	54,925.68	54,160.93

(\* 출판 : 연변출판국 출판통계, 1996, 1997, 1998)

위의 출판통계표에서 1996년 연변의 소수민족문도서출판 품종(종류)은 전반 소수민족출판 품종의 24.4%를 차지하고 초판인쇄는 21.5%를 차지하며, 1997년 연변의 소수민족문도서출판 종류는 전국 소수민족문도서출판 종류의 23.6%를 차지하고 초판은 23.6%를 차지하였다. 비록 산재지구 출판사와 민족출판사의 통계자료가 없기에 조선문출판의 정확한 비율을 낼 수 없지만 이 제한된 통계자료로부터 국내 다른 소수민족출판사에 비해 전체적인 실력이 있음을 찾을 수 있고 또 조선문출판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특징으로부터 중국조선족 출판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요소의 복합적인 조합 속에서 점차적으로 국내 주체민족과 다르고 한반도의 동족과도 같지 않으며 기타 소수민족과도 구분되는 자기의 출판문화를 형성하여 서로의 공존 속에서 독창적인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해 조선족출판업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진로모색에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한다.<sup>22)</sup>

## V. 결론 및 제언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서 아픔을 이겨내고 중국 내에서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월등한 지식정보자원을 생산하여 이것을 유통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출판과 인쇄를 통한 정보자원 생산은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 나타난 정보자원 생산자로서 출판사는 조선문 민족출판사로서 7개가 운영되고 있다.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요녕민족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등이다. 조선문(한글) 출판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1947년부터 1965년까지 조선문 출판의 초창기에는 5개출판사로 부터 2,062권이 발행되었으며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조선문 출판의 수난기에는 7개 출판사로부터 1,367권이 발행되었다. 또한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의 조선문 출판의 번영기에는 2,359권이 발행되었다. 이러한 조선문 도서의 출판은 조선족 사회와 애증을 같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출판사의 운영경비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내 수익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족 출판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조선문출판이 갖는 본연의 교육적 기능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문 출판이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시장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국 조선족들의 민족자산으로서 한글자료출

22) 림선옥, 송창수. “초보적 사고-중국조선족출판문화의 특색과 진로에 대하여.” 99 中國朝鮮族出版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延吉: 延邊教育出版社, 1999), pp.148-153.

판과 인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판을 지원한다든가 출판업자들의 모국에서의 선진 문물 연수를 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조선족 민족교육자들과 기업인들의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중국 내에서 조선족들은 물론 중국의 타민족들에게도 우리의 민족자산인 한글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중국에서의 소수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한 층 더 높아 질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생산기관과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필자들이 조사하여 제시한 재중 조선족 한글정보자원생산과 출판현황은 이 분야의 연구자와 출판산업 종사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이다. 아울러 보다 더 나은 연구로 다양하고 객관적인 중국 내 조선족 정보자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향후 이 연구는 출판현황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로 이들 정보자원에 대한 질적인 분석, 평가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평가 작업을 통해 국내의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정보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중국 내 조선족에게는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호가인하는 매체로 발전될 것이며, 국내에서는 이들 정보자원을 이용하여 중국 내 조선족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협력망 도구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현동, 주인영. 재중동포사회 기초자료집 I : 중국조선족 개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1999.
- 심여추. 연변조사실록. 연길 : 연변대학출판사, 1987.
- 楊昭全, 李輔溫. 『朝鮮義勇軍抗日戰史』. 서울: 도서출판 高句麗, 1995.
- 연변인민출판사. 조선족략사.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87.
- 연변인민출판사. 중공연변당조직활동년대기. 연길 : 연변출판사, 1989.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서울 : 재외동포재단, 2000.
- 주보중. 동북항일우격전쟁을 회억하여, 료원의 불길. 제4기. 중국인민해방군전사출판사, 1980.
- 樊希安 等. 99 中國朝鮮族出版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延吉 : 延邊教育出版社, 1999.
- 國家民族事務委員會經濟司. 國家統計局. 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中國民族統計年鑑 2000』. 北京 : 民族出版社, 2000.
- 北京市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新中國40年文藝理論研究資料目錄大全 : 1949-1989. 北京 : 中國和平出版社, 1992.
- 徐引篋, 霍國慶. 現代圖書館學理論. 北京 : 北京圖書館出版社, 2000.

吳慰慈, O焱. 『圖書館學概論』.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吳慰慈, 鮑振西, 辛希孟 等. 蓬勃發展的中國圖書館事業,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張樹華. 我國圖書館事業發展的軌迹与展望, 圖書管理論与實踐, 2001(3).

程亞男. 圖書館概論.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0.

包和平, 許斌 編. 『中國圖書館理論与實踐』.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6.

K C I